

전란 체험 실기에 나타난 감정의 글쓰기 양상*

－ 『간양록』에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에 대한 회복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윤인선**

【 차 례 】

- I. 들어가는 말
- II. 전란 경험에서 형상화되는 부정적 감정과 좌절된 주체
- III. 부정적 감정의 치유를 위한 담화 구성과 회복적 글쓰기
- IV. 마치며

국문초록

본고는 임진왜란 중 포로 생활에 대한 경험을 서술하고 있는 강항의 <간양록>을 중심으로 전란 체험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의 형성과 소통 양상에 관해 연구한다. 이를 위해 전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감정의 발생에 관한 양태화 양상과 그것을 소통하는 과정에서 주체의 회복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한 담화 전략에 주목한다. <간양록>의 서술 주체로서 강항은 임진왜란 중 개인적 ‘의지’와 사회적 ‘의무’가 좌절되는 상황에 놓인다. 이때 좌절된 주체는 개인적 의지의 좌절을 통해 존재의 상실감과 불안감과 같은 정신적 공황 상태에, 사회적 의무의 좌절을 통해 외부적 대상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에 빠진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 대해 시 쓰기를 통해 부정적 감정을 다시 표현하고 마주하는 과정에서, 존재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과정에 대한 글쓰기를 통해 회복탄력성을 발현해 나간다. 즉 강항은 글쓰기를 통해 전란 중 경험한 부정적 감정을 회복해 나간다.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2257)

**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조교수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는 ‘양태화’를 통해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부정적 감정의 형상화 양상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회복적 글쓰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부정적 감정에 대한 회복적 글쓰기에 대해 주체가 놓인 다양한 양태적 상황 따라서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열쇠어 : 『간양록』, 부정적 감정, 양태화, 개인적 의지, 사회적 의무, 회복적 글쓰기, 회복탄력성

I. 들어가는 말

본고는 임진왜란 중 포로 생활에 대한 경험을 서술하고 있는 강항의 『간양록』을 중심으로 전란 체험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의 형성과 소통 양상에 관해 연구한다. 이를 위해 전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감정의 발생에 관한 양태화 양상과 그것을 소통하는 과정에서 주체의 회복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한 담화 전략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란 체험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는 사건을 서술하며 나타나는 ‘회복적 글쓰기’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인간 사회의 역사 속에서는 다양한 전란이 나타났다. 각각의 전란들은 발생 조건이나 상황의 측면에서는 개별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지만, 피해의 측면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의 일상적 삶의 균형을 깨뜨리는 모습을 보인다. 전란에 관한 경험을 서술하고 있는 텍스트들은 당시 처참한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회적 모순에 대한 성찰과 더 나아가 고통 받는 개인의 회복 양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생체함을 보전하는 것이 자신의 실존을 확인받는 것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성찰할 수 있다”¹⁾는 딜타이(W. Dilthey)의 논의에 따라 연대기적 기록보다는 전란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서술하고

1) 빌헬름 딜타이 저, 김병욱 역, 『문학과 체험』, 우리문화사, 1991, 43~44쪽.

있는 경우에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역사적, 모방적 충동을 바탕으로 체험을 사실적으로 서술하는”²⁾ 실기(實記)는 닐타이가 논의한 생체험의 가치를 바탕으로 전란 체험 서술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전란 체험 실기는 행위에 대한 기억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실담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전란 체험에 대한 논의 역시 기억을 통해 재구성되는 인물의 행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동안 전란 체험 실기에 대한 논의는 주로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김미선, 이채연, 장경남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관련 자료의 존재 양상과 서사구조 및 세계관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하였다.³⁾ 최근에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전란 체험 실기의 심리적, 문화적, 교육적 의미와 활용 양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⁴⁾ 이처럼 전란 체험 실기의 중요성에 바탕을 둔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기억을 통해 재구성된 행위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기존 연구 경향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논의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 ‘감정’에 주목할 것이다.

2) 로버트 솔트·로버트 켈로그 지, 임병권 역, 『서사의 본질』, 예림기획, 2001, 23~24쪽.

3) 대표적으로 아래의 연구 성과를 들 수 있다.

김미선, 「임진왜란 포로의 일본 체험 실기 고찰」, 『한국고시가문화연구』Vol25, 한국고시가문학회, 2010.

_____, 『호남의 포로 실기문학』, 경인문화사, 2014.

이채연, 「임란포로 실기문학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1993.

장경남, 「임진왜란 실기문학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논문, 1997.

4) 대표적으로 아래의 연구 성과를 들 수 있다.

박덕규, 「임진왜란 포로 문제의 스토리텔링 방향: 강항의 <간양록>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Vol. 11, 한국문예창작학회, 2012.

정출현, 「임진왜란과 전쟁포로, 굴절된 기억과 서사적 재구」, 『민족문화』 No. 41, 한국고전번역원, 2013.

정충권, 「<간양록>의 피로 체험 글쓰기와 그 문학교육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Vol. 1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조현우, 「포로실기에 나타난 전란의 기억과 자기 정당화- <간양록>, <월봉해상록>, <정유피란기>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Vol. 54, 민족문화사연구소, 2014.

조동일이 지적했듯이, 실기를 비롯한 전란 체험에 대한 많은 기록과 증언은 기존의 규범적 문장과는 다르게 설명보다는 ‘묘사 중심’으로 되어 있다.⁵⁾ 그리고 이러한 묘사는 전란에 대한 객관적 사실만을 전달하기 보다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하며 서술 주체의 다양한 감정들을 보여준다. 이때 감정은 행위에 대한 선조건이면서 동시에 반응으로 기능한다. 우리가 사건에 대해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왜와 불쾌를 비롯한 대상에 대한 감정을 통해 형성된 기본적인 인식체계를 바탕으로 한다.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식이라는 정희진의 논의처럼,⁶⁾ 전란 체험을 통해 나타나는 슬픔이나 분노,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사건에 대한 주체의 인식체계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전란에서 나타나는 감정에 대한 연구는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적 재구성만으로 논의할 없는 비극적 사건에 대한 주체의 인식과 정서적 대응 양상에 대해 고찰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상의 전제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전란 중 사회적·개인적 맥락에서 형성된 ‘좌절된 주체’가 부정적 감정의 형성을 매개로 비극적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며, 대응해 나가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전란 체험 실기에 나타나는 감정의 형상화와 소통 양상에 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트라우마적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정서적 대응과,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회복적 글쓰기의 기능과 의미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포로 경험을 서술하고 있는 다양한 실기 중 강항의 『간양록(看羊錄)』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⁷⁾ 『간양록』은 강항(姜沆, 1567~1618)이 1597년 피랍되어 일본에서

5)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권, 지식산업사, 1984, 7~40쪽

6) 정희진, 「분노는 평화의 자원이다」, 『치유의 인문학』, 위즈덤하우스, 2016, 201쪽.

7) 본고에서 인용하는 『간양록』은 『국역 해행총제』2(민족문화추진회, 1982)의 것을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필자가 수정하여 활용한다.

억류 생활을 하다가 1600년 5월에 부산으로 돌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되었다. 『간양록』은 문학사에 최초로 등장하는 포로 실기이다. 또한 이후 텍스트들은 모두 『간양록』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⁸⁾ 따라서 다양한 전란 체험 실기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간양록』은 강항이 일본에 있을 때의 상황과 보고 들은 것들을 임금 전하는 「적중봉소(賊中封疏)」, 일본에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적중문견록(賊中聞見錄)」, 대마도의 다른 포로들에게 의리를 지키며 희망을 가지라고 권하는 격문인 「고부인격(告俘人檄)」, 귀국 후 승정원에 나아가 일본의 재침 여부와 대마도의 사정을 기록한 「예승정원계사(詣承政院啓辭)」, 전란 과정에서 가족의 행적 및 교류 등의 환란 생활을 일기 형식으로 서술한 「섭난사적(涉亂事迹)」의 5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간양록』은 사실과 경험에 대한 ‘보고 중심’의 글과 ‘정서적 반응의 형상화 중심’의 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고부인격」과 「섭난사적」에서는 단순한 사실에 대한 기록을 넘어서 포로 생활의 비통과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이 구체적인 어휘와 한시를 통해 서술하된다.⁹⁾ 또한 「적중봉소」 역시 부분적이지만 비극적 상황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서술 주체의 감정적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간양록』은 전란 체험을 서술하는 다양한 목적과 대상에 관한 부정적 감정 형성과, 그것을 소통하며 나타나는 좌절된 주체의 재구성에 관해 논의하기에 효과적인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8) 이채연, 『임진왜란 포로실기 연구』, 박이정, 1995, 88~94쪽.

9) 임치균, 「『看羊錄』 연구: 사실 제시와 체험의 형상화」, 『정신문화연구』 Vol. 24 No. 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1, 120~126쪽.

II. 전란 경험에서 형상화되는 부정적 감정과 좌절된 주체

『간양록』은 강향이 임진왜란에서 경험한 비극적 사건을 통해 형성되는 불안, 분노, 슬픔과 같은 다양한 부정적 감정에 대해 서술한다.

- (1) 신은 지극히 황공하고 애통하며 절박함을 견디지 못하오며, 삼가 소를 올려 아웁니다.
- (2) 이 배 저 배에서 부르짖어 우는 소리가 바다와 산을 진동하였습니다.
- (3) 나는 온 집안이 침몰당한 뒤부터 두 눈이 말라붙었는데, 이날 밤에는 옷소매가 다 젖었다.

위 인용은 『간양록』에 서술된 부정적 감정 중 일부이다. 『간양록』에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은 “애통하며 절박함”과 같이 직접적인 어휘만을 활용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2)에서 알 수 있듯이 “우는 소리”나 “바다와 산의 진동”과 같이 비극적 상황에 대한 주체의 긴장성을 보여주는 표현이나, (3)에서와 같이 “두 눈이 말라붙었는데”나 “옷소매가 다 젖었다”와 같은 신체적 반응을 활용한다. 그리고 이들은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문화적 코드를 통해 부정적 감정으로 해석된다.¹⁰⁾ 이처럼 『간양록』에 나타나는 전란에 관한 부정적 감정은 어휘소뿐만 아니라, 담화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감정 효과’까지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때 『간양록』의 부정적 감정은 사실적 기록에 나타나는 비극적 사건이나 행동을 바라보는 서술 주체의 인식체계와 연루되어 나타난다.

정유년 가을로부터 무술년 봄 여름에 이르도록 천병과 더불어 교전하여 사상자가 펍 많았으므로, 독려하여 점호를 하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떠났고 (중략) 포를 쏘는 것도 열 사람 가운데 두 세명에 불과하며, 쏘아서 명중하는 사람은 더욱 적습니다. 아아, 슬픈 일입니다.

10) 홍정표, 『정념 기호학』,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4, 268쪽.

위 인용은 강함이 전란 당시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사실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에 대한 반응으로 “슬픈 일”이라는 자신의 감정을 서술한다. 이때 경험이나 정보에 대한 사실적 기록과 감정적 서술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비극적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 주체의 인식체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감정이 서술된다. 다시 말해, 부정적 감정은 비극적 사건에 대한 ‘서술 주체의 인식적 반응’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란 경험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의 형상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슬픔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 자체뿐만 아니라, 서술 주체의 인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원리로 감정이 서술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서술 주체가 어떻게 비극적 사건을 인식하고 대응해 나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담화 층위에서 나타난 감정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양태화에 주목한다.¹¹⁾ 양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과학문마다 조금씩 다른 정의를 내린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서술어를 초규정하는 술어’라는 언어학에 바탕을 둔 기호학적 정의에 주목한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 양태에 ‘자신의 논지와 관련하여 발화자의 입장을 표현하는 역할’을 할당시킬 수 있다.¹²⁾ 따라서 양태는 특정한 행위에 앞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주체의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전란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11) 그레마스는 정념이 의미 생성 행로 세 층위를 통해 표출된다고 하였다. 정념이 선조건 층위 감의 긴장적 공간에서 연속적 변조가 이산화하여 기호-서사 층위에 도달한 후 이 층위의 양태 장치가 담화 층위에 소환되어 상화되며, 또한 선조건 층위 변조가 담화 층위에 직접 소환되어 상화되어, 이 두 절차가 동시에 표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분석할 경우 주체의 신체적 떨림, 흥분, 허무감과 같은 ‘감정 효과’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간양록』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이러한 부분들까지 함께 고려하려 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자크 폰타니유가 <기호학과 문학>에서 제안한 ‘구성요소’와 ‘현시요소’의 상보작용에 주목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서사적 술어의 양태를 중심으로 논의한 ‘구성요소’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위의 책, 247~248쪽 참조.

12) 김성도, 『구조에서 감성으로-그레마스 기호학 및 일반 의미론의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272쪽.

A. J. Greimas, trans. Larry Crist, *Semiotic and Language-An Analytical Dictionary*, Indiana University Press, 1982, pp.193~195.

감정은 행위의 결과나 사실에 대한 반응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특정한 행위에 이르게 하는 동기와 의도 혹은 조건과 같은 인식체계에 관련된 양태적 언술 자질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이때 자크 폰타니유(Jacques Fontanille)는 특정한 행위에 이르는 양태의 구성 요소를 ‘믿음-동기-자질-실행’의 차원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¹³⁾

	믿음	동기	자질	실행
내인성(개인적 자질)	/수용하다/	/하고싶다/(의지)	/알다/(지식)	/이다/(상태)
외인성(사회적 자질)	/동조하다/	/해야한다/(의무)	/할 수 있다/(능력)	/하다/(행동)
	가능태	잠재태	현실태	실현태

그에 따르면 ‘실현된’ 상태인 존재의 /이다/ 혹은 /하다/는 ‘동기’(잠재태)와 ‘자질’(현실태)에 관한 양태들의 상관관계를 통해 형성된다. 이때 동기는 개인적 자질에 관한 양태인 의지(/원하다/, /하고싶다/)와 사회적 자질에 관한 양태인 의무(/해야한다/)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이 둘은 자신의 ‘잠재화된’ 동기를 ‘현실화’할 수 있는 지식(/알다/)이나 능력(/할 수 있다/)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실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¹⁴⁾

이때 주체를 구성하는 감정 효과는 동기와 자질에 관련된 양태들의 상관관계를 통해 발생한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에 관한 양태 구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체의 감정 효과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양태가 상관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형성된다.¹⁵⁾ 가령, 기사가 공주를 구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는 주체(/하다/)는 동기 층위에서 ‘공주를 구하고

13) 자크 폰타니유 저, 김치수·장인봉 역, 『기호학과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112~113쪽.

홍정표, 앞의 책, 252~253쪽.

14) 이는 그레마스가 제안한 조정-역량-수행-검증과 같은 서사 프로그램을 양태의 차원에서 재구성한 것이다.

15) 자크 폰타니유, 앞의 책, 113쪽.

싶다’(/하고싶다/)는 의지 양태와 자질 층위에서 ‘마법을 부려서 공주를 구할 수 있다’(/할 수 있다/)는 능력 양태의 상관관계 속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실행(/구하다/)되었을 때 담화 차원에서 성취에 관한 기쁨이나 공주와의 사랑과 같은 주체의 감정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반대로 동기 층위에서 ‘공주를 구하고 싶다’(/하고 싶다/)는 의지 양태가 존재하지만, 자질 층위에서 ‘공주를 구할 능력이 없다’(/할 수 없다/)는 부정적 능력 양태와 상관관계에 놓인다면 담화 차원에서 좌절이나 분노와 같은 주체의 부정적 감정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양태들의 상관관계 속에서 궁극적으로 사건을 경험하는 주체의 정체성 역시 재구성된다.¹⁶⁾ 이상의 전제를 바탕으로 양태화의 맥락에서 『간양록』에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의 형상화에 관해 살펴보고 그 특징에 관해 논의해 보겠다.

1. 개인적 ‘의지’의 양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

먼저 동기 층위에서 개인적 ‘의지’가 현실화되지 못하며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에 관해 살펴보겠다. 개인적 의지가 좌절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은 전란을 경험한 주체에게 잠재화된 개인적 바람이나 욕망을 특정한 지식이나 능력을 통해 현실화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는 『간양록』의 「섭난사적」에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3일 아침 사시에 당두에서 또 논잠포로 향했는데 노친이 혹시 논잠포에 계시는가 생각되서였다. 바다 안개가 자욱한 속에 문든 황당선 한 척이 돌연히 날아오자 뱃사람들이 왜선이 온다고 외치므로 나는 사로잡힘을 면치 못할 것을 알고서, 옷을 벗고 물 속에 뛰어 버리자, 한 집안 처자 형제와 한 배의 남녀가 거의 반 이상이 함께 물에 빠졌다. 그런데 **배 때는 언덕이어서**

16) 홍정표, 「정념의 기호학과 담화 기호학의 상호보완적 고찰」, 『기호학연구』 Vol. 28, 한국기호학회, 2010, 292~312쪽 참조.

물이 얕아 적이 와선의 장대로 끌어내어 일제히 포박하여 세워 놓았다.(중략) 망모, 망형의 목주는 중형이 안고 물 속에 떨어졌는데, 끌어내는 사이에 수습하지 못하였으니, 돌아가신 모친과 살아계신 부친을 섬겨보려던 뜻이 한번에 다하고 말았다. (중략) 24일 반수 이상이 우리 남녀로 서로 뒤섞여 있고, 양옆에는 어지러히 싸인 시체가 산과 같고 울음 소리가 하늘에 사무쳐 바다 조수도 역시 흐느꼈다.

위 인용은 강항이 왜군에게 붙잡혀 이송되는 과정에서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사건의 일부이다. 그는 가족과 헤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쌓여가는 비극적 사건들에 대해 “울음 소리가 하늘에 사무쳐 바다 조수도 역시 흐느꼈다”는 감정적 반응을 보인다. 즉 그는 전란 중 경험하게 되는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울음 소리”와 같은 표현을 통해 서술한다. 이때 “나는 사로잡힘을 면치 못할 것을 알고 옷을 벗고 물 속에 뛰어들 버리자”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강항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기를 원하였다. 또한 “돌아가신 모친과 살아계신 부친을 섬겨보려던 뜻”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가족과 함께 하기를 원하였다. 즉 행위를 구성하는 동기 층위에 ‘잡혀가지 않기를 원하다’와 ‘부모를 섬기기를 원하다’와 같은 개인적 의지에 관한 양태가 존재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 의지에 관한 양태는 전란 중 포로 생활이라는 상황 속에서 “배 때는 언덕이어서 물이 얕아 적이 와선의 장대로 끌어내어 일제히 포박하여 세워 놓았다”(그래서 죽을 수 없었다)와 “수습하지 못하였으니”(수습할 수 없었다)와 같은 표현에서 나타나는 / 할 수 없다/(능력 없음)의 양태와 상관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이 둘의 상호작용을 통해 강항은 부정적 감정을 매개로 개인적 의지가 좌절된 주체로 형상화된다.

이때 개인적 의지가 좌절된 주체는 상실감과 불안감을 통해 정신적 공황에 빠진 모습을 보인다.

부인들이 다 자수하자 왜선으로 몰아 올라가게 하고, 나의 형제를 옮겨 실으면서 말하기를 ‘장차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하였다. 나의 첩, 처부모 및 장형수, 비자 10명과 처부의 세자매 등을 나누어 심기도 하고 혹은 살해 하기도 했다. 슬프도다(중략) 누가 갑자기 이 지경을 당할 줄이야 생각했겠는가? 삶과 죽음을 생각하니 비통하기 그지 없지만, 나 역시 목숨이 어느 때까지 붙어 있을지 알 수 없는 처지였다. 노비들도 나를 버리고 달아난 자는 모두 목숨을 도생했고, 상전을 연연하여 차마 가지 못한 자는 모두 살해를 당했으나, 이 역시 슬픈 일일 따름이었다.

위 인용은 『간양록』 「섭난사적」의 일부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강항에게는 가족들이 죽고 헤어지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벗어나길 원하다) 개인적 의지에 관한 양태가 존재했다. 하지만 “장차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따라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다/함께 살 수 없다)와 같은 표현에서 나타나는 /할 수 없다/(능력 없음)의 양태와 상관관계를 맺는다. 이를 통해 “슬프도다”로 표현되는 부정적 감정 효과가 형성된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힌 주체는 “자신의 목숨이 어느 때까지 붙어 있을지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불안감과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죽는다”는 상실감을 통한 정신적 공황 상태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개인적 의지가 좌절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은 잠재화된 동기를 현실화할 수 있는 능력의 부재로 인해 형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감정에 빠진 주체는 개인적 욕망의 좌절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실감과 불안감으로 인해 정신적 공황 상태에 가까운 모습으로 서술된다.

2. 사회적 ‘의무’의 양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

다음으로 동기 층위에서 사회적 ‘의무’가 현실화되지 못하며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에 관해 생각해 보겠다. 사회적 의무가 좌절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은 전란을 경험한 주체에게 잠재화된 공동체의 규

범이나 윤리와 같은 사회적 의무를 특정한 지식이나 능력을 통해 현실화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는 『간양록』의 「고부인격」에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신상의 원수로써 말하자면, 우리 가묘를 불태웠고, 우리 선영을 파헤쳤고, 그 모예를 접락하고, 그 자체를 묶어 갔다. 칼 아래 허리가 동강 나는 것은 다 나를 돌보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유체였고, 창대 위에 춤추듯이 떨어지는 것은 다 곱고 고운 어린아이들이었다.(중략) 인륜의 화가 이와 같은지라, 골육의 정이 어찌 참을 수 있겠느냐, (중략) 선영의 우거진 풀에 누가 한 그릇의 보리밥을 올리며 교목의 황량한 거리에 3년의 화서를 거둬들이랴. 이와 같은 아득한 심정이라, 어찌 답답히 앉아만 있겠는가? (중략) 아야 우리 유리된 하찮은 족속이, 누군들 애통하고 분개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위 인용은 앞 절의 「섭난사적」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자기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비극적 사건에서 형성된 부정적 감성을 서술한다. 그는 가묘가 불태워지고 선영이 파헤쳐지며 부모의 상을 제대로 치를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각각 “골육의 정을 어찌 참을 수 있겠느냐” “누군들 애통하고 분개하는 마음이 없겠는가”라는 감정적 반응을 보인다. 즉 그는 전란 중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 감정을 “애통하고 분개하는 마음”과 같은 직접적인 어휘뿐만 아니라, “참을 수 있겠느냐/마음이 없겠느냐”와 같은 반어적 표현을 통해 서술한다. 「고부인격」은 “나는 한낱 죽지 못한 사람으로 너희들과 함께 맹세한 뜻 있는 선비들에게 고한다”라고 시작하며 “글이 뜻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격문대로 시행하라”고 마무리한다. 즉 이 글은 다른 포로들에게 의리를 지키며 희망을 가지기를 권하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이때 강항은 직접적인 어휘나 반어적 표현을 통해 부정적 감정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글의 목적을 소통하기 위해 자신에게 잠재화된 사회적 의무를 강조한다. 이를 위해 ‘가묘가 불태워진 상황’ ‘선영이 파헤쳐진 상황’과 같은 ‘인륜

의 화'로 요약할 수 있는 조상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서술한다. 다시 말해 「고부인격」에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은 공동체의 규범이나 윤리와 같은 사회적 의무에 바탕을 둔 /해야한다/(집안의 가묘를 지켜야 한다/선영을 가꾸어야 한다) 양태와 포로 생활과 왜군들의 만행에 의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 관한 /할 수 없다/(집안의 가묘를 지킬 수 없다/선영을 가꿀 수 없다) 양태의 상관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간양록』의 「적중봉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적중봉소」의 “전하께서 시험삼아 정신들여 잘 살펴보소서. 신은 지극히 황공하고 애통하며 절박함을 견디지 못하오며 삼가 소를 올려 아뢰입니다”라는 마지막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강항이 전란 중에 경험하게 된 애통하고 절박함 감정을 임금에게 서술한 글이다. 이러한 「적중봉소」에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은 주로 아래 인용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신이 벗어나지 못할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나머지 자속과 더불어 함께 바닷물 속으로 떨어졌는데, 배를 맨 기슭이 물이 얕아 모두 왜놈들에게 잡히게 되고, 오직 신의 아버지만 혼자 탄 배를 잡아타 모면했을 뿐, 분호조 곡식을 모집한 공명첩 수백 통이 모두 물 속에 침몰되었습니다. 직무 수행을 형편없이 하여 위로 조정을 욕되게 하였으니, 더욱 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아, 전투에 실패한 장수도 오히려 용맹을 말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신은 사로잡혀 적의 소굴에서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처지로서, 문득 감히 붓대를 놀려 조정 정책의 득실을 논한다는 것은 극히 참람한 일으로서 죄를 면할 길이 없는 줄 압니다.

「적중봉소」에는 주로 죄의식 또는 부끄러움에 바탕을 둔 부정적 감정이 나타난다. 첫 번째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서술 주체에게는 신하로서 직무를 수행해야하는 사회적 의무가 잠재되어 있다. 하지만 “배를 맨 기슭이 물이 얕아 모두 왜놈들에게 잡히게 되고” 더욱이 “공명첩 수백 통

이 물 속에 침몰되는” 사건을 경험한다. 즉 /해야한다/(신하로서 왜놈에게 붙잡히지 말고 충성을 다해야한다)는 사회적 의무에 관한 양태와 /할 수 없다/(물이 얕아 붙잡히지 않을 수 없다)는 양태가 상관관계를 이룬다. 따라서 그는 일본군에게 잡히는 과정에서 더 이상 신하로서의 사회적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조정을 욕보이게 되었다”는 부끄러움에 바탕을 둔 부정적 감정이 형성된다.

두 번째 인용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강항은 일본에 붙잡혀서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따라서 「적중봉소」에 나타나는 죄의식과 같은 부정적 감정은 강항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의무인 ‘신하의 도리를 다해야한다’에 관한 /해야한다/의 양태가 포로로 붙잡혀 있는 /할 수 없다/(능력 없음)의 양태와 상관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즉 「적중봉소」에 나타나는 죄의식과 부끄러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은 신하로서의 도리와 같은 사회적 의무에 바탕을 둔 /해야 한다/ 양태와 포로 생활로 인해 현재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개인적 상황에 관한 /할 수 없음/(능력 없음) 양태의 상관관계를 통해 형성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강항은 부정적 감정을 매개로 사회적 의무가 좌절된 주체로 형상화된다.

이때 사회적 의무가 좌절된 주체는 외부적 대상을 적대시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먼저 『간양록』의 「적중봉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아, 진나라가 예를 버리고 공을 숭상하므로 노중련이 오히려 동해로 들어가려 했고, 무왕은 인으로써 포박한 자를 치는데도 백이가 오히려 서산에서 굶어 죽었는데, **하물며 이 왜가 얼마나 추한 놈들이며, 이 땅이 얼마나 먼데며, 우리나라 신민에게 얼마나 원수진 놈들입니까?**

위 인용에서 강항은 왜군에 대해 “추한 놈들”이라고 표현한다. 이를 통해 /할 수 없다/(능력 없음) 양태로 인해 신하로서의 사회적 의무가 실

현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 존재인 왜군을 적대시하며 분노를 표현한다. 강항이 실현하지 못한 사회적 의무는 신하로서 직분을 지닌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왜군을 단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신민에게 얼마나 원수진 놈들”로 확대하며 대상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를 표현한다.

이러한 모습은 『간양록』의 「고부인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칠지의 더러운 나라를 생각해 보면, 실로 황목의 이류로서, 우 임금의 자취가 미치지 못한 곡이요, 주나라의 궤도와도 같지 않은 곳이다. 안사고의 화이도에 실리지 아니했고, 유 종원은 또한 풍토기에서 빼 놓았다. (중략) 참람히도 일층의 천자라 일컬으며 남몰래 해외의 지방을 차지했다. 임금 치하하기를 바둑 두듯이 하여 난신 적자가 후세에 발자국을 맞대었고, 사람 보기를 초개같이 하여 하찮은 물건이나 세세한 연고라도 모두 음형에 몰아 넣었다. (중략) 국가의 원수로 따져 본다면 우리 사직을 불사르고 우리의 서울을 더럽히며 (중략) 이는 이 나라 백성으로서 원통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적중봉소」와 마찬가지로 강항은 /할 수 없다/(능력 없음) 양태로 인해 사회적 의무가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 존재인 왜군에 대한 분노를 서술한다. 그는 왜군에 대해 “사람을 풀벌레 같이 여겨 참혹한 형벌만 눌러 씌운다”고 설명한다. 또한 비극적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齒)를 검게 만드는 오랑캐의 풍습인 칠지를 지적하며 직접적으로 “더러운 나라”라고 언급한다. 즉 사회적 의무의 좌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분까지 언급하며 대상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한다. 이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왜군의 존재와 행적에 대해 “이 나라 백성으로서 원통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하며 대상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확대시켜 서술한다.

이처럼 사회적 의무가 좌절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은 잠

재화된 동기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능력의 부재로 인해 형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주체는 공동체 규범이나 윤리와 같은 사회적 의무를 좌절시킨 대상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에 빠진 모습을 보인다.

Ⅲ. 부정적 감정의 치유를 위한 담화 구성과 회복적 글쓰기

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간양록』에는 동기 측면에서 개인적 ‘의지’와 사회적 ‘의무’가 좌절된 주체가 각각 ‘상실감과 불안감으로 인해 정신적 공황’과 ‘대상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인다. 이때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힌 주체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형성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회복탄력성이란 심리적 기능의 실패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증후 없이 심각한 트라우마나 역경을 겪어내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전란과 같은 트라우마 사건에 의해 삶이 갑자기 비극적으로 간섭을 받을 때, 회복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은 극복하려고 한다.¹⁷⁾ 이때 『간양록』에 나타나는 주체는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여 서술하는 과정에서 비극적 상황을 성찰적으로 극복하고, 삶을 회복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인다.¹⁸⁾

1. 부정적 감정을 ‘다시 서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회복적 글쓰기

『간양록』에서는 먼저 좌절된 주체가 경험한 부정적 감정을 시(詩) 쓰기와 같은 방식을 통해 ‘다시 서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회복적 글쓰기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주로 개인적 의지에 관한 양태가 현실화되

17) 아이다 알라야리안 저, 김현아·최대현·김규식·조용태 역, 『트라우마 회복탄력성과 상당실제』, 시그마프레스, 2011, 29~32쪽.

18) 도미니크 라카프라 저, 육영숙 역, 『치유의 역사학으로-라카프라의 정신분석학적 역사학』, 푸른역사, 2007, 387~397쪽.

지 못하며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튿날에 한 척의 적의 배가 옆을 스쳐가는데 어떤 여자가 급히 ‘영광사람 영광사람’하고 부르므로, 둘째 형수가 나가 물으니, 바로 애생의 어미였다. 배를 따로 탄 이후로 벌써 귀신이 되었으리라고 말하였었는데 이제야 비로서 그들이 살아있음을 알았다. 그이가 천민 가지로 슬피 하소연하는 것을 귀로는 차마 들을 수 없었다. 이 날 밤부터 밤마다 통곡을 했다. (중략)
그래서 절구시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한 바다 아득아득 달 조차 지려는데/눈물이 이슬과 함께 옷섶을 적시누나
넘심섬실한 이 수면 상사한들 어찌하리/견우직녀 응당 이 밤 심정 알게로세

위 인용은 『간양록』 「섭난사적」의 일부이다. 서술 주체는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 ‘함께 하고 싶다’는 개인적 의지에 관한 양태가 좌절된 상황에 놓였다. 그리고 “그래서 절구시 한수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이 놓인 비극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통곡”이나 상실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에 대해 시 쓰기를 통해 대응한다. 이때 서술 주체가 작성한 시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나 비극적 상황을 극복하고자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견우직녀”나 “눈물”과 같은 어휘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실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담담하게 ‘다시’ 서술한다.

이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서술하면서 담담하게 마주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회복적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드는 트라우마 상황 속에서 비극적 감정에 사로잡힌 주체에게 나타나는 현실 부정, 억제, 억압과 같은 심리적 방어기제들은 매우 낮은 수준의 사고전략에 불과하다고 단정한다. 오히려 그러한 부정적 기제들에 맞설 때, 당사자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있으며 더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됨으로써

더욱 능동적인 입장에 설 수 있다고 말한다.¹⁹⁾ 이러한 맥락에서 비극적 사건을 경험한 주체는 상실감과 불안감으로 인해 자신을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던 부정적 감정을 회피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마주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꿈 속에 놀라 일어나 바라보니 백토로 쌓올린 성첩이 창해 위 운무 속에
돌연히 나타나고 10층 누각이 반공에 높이 드러나 있으므로 **담이 떨리고 정
신이 싸늘해져서 오래도록 진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시 한수를 지었다.**

(중략) 외롭게 갇힌 신세 언제나 돌아갈까/시름이 하도 많아 꿈을 지이니
별안간에 남산이 보이는구나

위 인용에서 서술 주체는 “담이 떨리고 정신이 싸늘해지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 이르자 “그래서” 시를 썼다고 한다. 이는 시를 쓰는 과정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대한 주체의 반응이며, 이를 통해 회복될 수 있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때 쓰여진 시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돌아가길 원한다)는 개인적 의지가 좌절된 상황에서 나타나는 상실감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개인적 의지가 현실화되지 못한 서술 주체는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을 다시 표현하는 시를 쓴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비극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을 조심스럽게 마주하고 삶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존재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회복적 글쓰기

다음으로 『간양록』에서는 좌절된 주체가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려는 회복적 글쓰기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주로 사회적 의무에 관한 양태가 현실화되지 못하고 나타나

19) 세퍼트 코미나스 저, 임옥희 역, 『치유의 글쓰기』, 홍익출판사, 2008, 93쪽.

는 부정적 감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에 관해 『간양록』의 「고부인격」과 「적중봉소」를 통해 생각해 보겠다.

(1) 아아. 우리 유리된 하찮은 족속이, 누군들 애통하고 분개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나 같은 자는 강남의 구족이요, 노중의 제생으로 머리를 땅을 적 부터 육경을 외어 대강 군신의 대의를 알았고, 과거에 응하여 삼책을 올리 어 진작 일월의 말광에 의지했으니, 호발도 다 나라의 은혜요, 이마와 발꿈 치가 모두 임금의 만드신 것이다. 4년 동안 6품의 관을 지냈다. 나라를 잊겠 는냐, 임금을 잊겠느냐?

(2) 극히 참람한 일로서 죄를 면할 길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옥이 생각하오면, 옛 사람은 시간을 한 사람도 있고, 죽음에 임박해서도 계책을 올릴 것을 잊지 아니한 사람도 있으니, 진실로 국가에 조금이라도 이익될 일이 있다면 또한 죄인이라 하여 드디어 말하지 않는 것도 불가하옵니다. (중략) 이에 감히 체면 무릅쓰고 기록하되, 왜승의 제판 가운데 왜의 언서로 쓴 곳을 신이 직접 우리나라 언서로 등주하여, 모인의 탐간과 투항한 왜의 추문에 있어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위 두 인용은 각각 「고부인격」과 「적중봉소」의 일부이다. 먼저 (1)에 서 서술 주체는 인륜과 같은 공동체의 규범(사회적 의무)이 좌절된 상황 에서 ‘애통과 분개’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자신이 “강남의 구족”이고 “군신의 대의”를 잘 알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나라와 임금에 관한 사회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존재하 는 점을 강조한다. 즉 서술 주체는 격문을 읽을 포로들에게 자신의 존재 가 신뢰할 만하고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모습은 (2)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인용 (2)에서 서술 주체는 신하로서 사회적 의무가 좌절된 상황에서 “죄를 면할 길이 없다”는 죄의 식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다. 이때 서술 주체는 “옛 사람”의 사례

를 통해 자신이 다시 임금에게 충성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는 존재라는 점을 논증한다. 이를 통해 자신이 비극적 상황 속에서도 나름의 방식으로 사회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처럼 서술 주체는 「고부인격」을 읽는 포로들과 「적중봉소」를 읽을 임금에게 비록 현실에서는 사회적 의무가 좌절되었지만, 자신은 그것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기를 희망한다. 이는 사회적 의무를 실현하지 못해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주체가 타인에게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를 기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회복적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간양록』의 「고부인격」과 「적중봉소」에는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서사를 바탕으로 좌절된 사회적 의무를 나름의 방식으로 수행하며 좌절된 주체를 회복해 나가는 글쓰기 양상이 나타난다.

(3) 해바라기도 해를 따라 기우는데 사람으로서 풀만 같지 못하랴. 길로 새가 만산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야만으로 변하는 것을 부끄러워한 까닭이다. 글이 뜻을 다하지 못했으니 격문대로 시행하랴

(4) 적의 기세가 급박할 경우에는 바리바리 실어 내어 손쉽게 도피하니, 나라의 난민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읍건대, 전하께서 분명하게 유사를 단속하여, (중략) 진실로 능히 적을 제어한다면 탐욕부리는 것이 무슨 상심거리가 되겠습니까?

위 인용에서 서술 주체는 「고부인격」을 읽는 포로들에게 “격문대로 시행하랴”고 당부하며, 「적중봉소」를 통해 임금에게 “바로읍건대” 이후 내용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신의 대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좌절된 사회적 의무를 나름의 방식으로 수행하려 한다. 만약 자신이 포로들에게 하찮은 존재로 혹은 임금에게 불충한 신하로 받아드려진다고 판단했다면, 타인에 대한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이러한 서술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 서술 주체는 독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인정받기를 희망하는 존재’의 자질에 관해 서술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구성된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좌절된 사회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 방안에 대한 글쓰기를 통해 부정적 감정을 극복해 나간다.

다시 말해, 사회적 의무가 현실화되지 못한 서술 주체는 공동체에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서술한다. 그리고 이후 획득될 수 있는/획득되기를 희망하는 존재의 정당성을 바탕으로 비극적 상황에서 좌절된 사회적 의무를 나름의 방식으로 수행하며(혹은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통해) 삶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한다.

IV. 마치며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간양록』에 나타나는 전란 중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의 형성과 글쓰기를 통한 대응 양상에 관해 살펴보았다. 『간양록』의 서술 주체인 강항은 임진왜란 중 개인적 ‘의지’와 사회적 ‘의무’가 좌절되는 상황에 놓인다. 이때 좌절된 주체는 개인적 의지의 좌절을 통해 존재의 상실감과 불안감과 같은 정신적 공황 상태에, 사회적 의무의 좌절을 통해 외부적 대상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에 빠진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각각의 상황 속에서 시 쓰기를 통해 부정적 감정을 다시 표현하고 마주하고, 존재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과정에 대한 글쓰기를 통해 회복탄력성을 발현해 나간다. 즉 강항은 글쓰기를 통해 전란 중 경험한 부정적 감정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다.

글쓰기를 통한 트라우마나 부정적 감정의 치유에 관한 논의들에서는 대부분 분노나 불안과 같은 ‘대상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트라우마나 부정적 감정에 대해 주체가 어떠한 방어기제를 발휘하는지 혹은 그것을 자신이나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

게 바라보고 재구성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양태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부정적 감정의 형성에 관한 인식체계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회복적 글쓰기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에 대한 회복적 글쓰기에 대해 주체가 놓인 양태적 상황 따라서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항 저, 이을호 역주, 『간양록-바다 건너 왜국에서 보낸 환란의 세월』, 서해문집, 2005.
- 민족문화추진회, 『해행총재』 2,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82.
- 김미선, 「임진왜란 포로의 일본 체험 실기 고찰」, 『한국고시가문화연구』 Vol. 25,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0, 24~54쪽.
- _____, 『호남의 포로 실기문학』, 경인문화사, 2014.
- 김성도, 『구조에서 감성으로-그레마스 기호학 및 일반 의미론의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 딜타이, 빌헬름 저, 김병욱 역, 『문학과 체험』, 우리문화사, 1991.
- 라카프라, 도미니크 저, 육영숙 역, 『치유의 역사학으로-라카프라의 정신분석학적 역사학』, 푸른역사, 2007.
- 박덕규, 「임진왜란 포로 문제의 스토리텔링 방향: 강항의 『간양록』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Vol. 11, 한국문예창작학회, 2012, 187~218쪽.
- 솔트, 로버트·켈로그, 로버트 저, 임병권 역, 『서사의 본질』, 예림기획, 2001.
- 알라야리안, 아이다 저, 김현아·최대현·김규식·조용태 역, 『트라우마 회복탄력성과 상당실제』, 시그마프레스, 2011.
- 이채연, 「임란포로 실기문학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1993.
- _____, 『임진왜란 포로실기 연구』, 박이정, 1995.
- 임치균, 「『看羊錄』 연구: 사실 제시와 체험의 형상화」, 『정신문화연구』 Vol. 24 No. 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1, 105~127쪽.
- 장경남, 「임진왜란 실기문학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논문, 1997.
- 정출현, 「임진왜란과 전쟁포로, 굴절된 기억과 서사적 재구」, 『민족문화』 No. 41, 한국고전번역원, 2013, 5~40쪽.
- 정충권, 「<간양록>의 피로 체험 글쓰기와 그 문학교육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Vol. 1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65~92쪽.
- 정희진 외, 『치유의 인문학』, 위즈덤하우스, 2016.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권, 지식산업사, 1984.
- 조현우, 「포로실기에 나타난 전란의 기억과 자기 정당화- <간양록>, <월봉해상록>, <정유피란기>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Vol. 54, 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185~214쪽.
- 코미나스, 세퍼트 저, 임옥희 역, 『치유의 글쓰기』, 홍익출판사, 2008.

퐁타니유, 자크 저, 김치수·장인봉 역, 『기호학과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홍정표, 「정념의 기호학과 담화 기호학의 상호보완적 고찰」, 『기호학연구』 Vol.
28, 한국기호학회 2010, 283~319쪽.
_____, 『정념 기호학』,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4.

Greimas, A. J., trans. Larry Crist, *Semiotic and Language-An Analytical Dictionary*,
Indiana University Press, 1982.

A study on writing about ‘emotions’ in war
experience narrative:
Focusing on restorative writing about negative emotions
in *Ganyangnok*(看羊錄)

Yoon, In-sun

This paper deals with the formation and communication of negative emotions in war focusing on *Ganyangnok*(看羊錄). To this end, attention is paid to modal structure of the negative emotions that can be experienced in war and discourse strategy to maintain resilience. The subject of *Ganyangnok* is in a situation where personal ‘will’(want) and social ‘duty’(must) are frustrated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Imjinwar*. At this time, the subject experiences mental depression conditions such as loss of existence and anxiety through the frustration of personal will and anger and hostility to external objects through frustration of social duty. Then the subject develops resilience to write poetry about negative emotion and to write about the process of proving the legitimacy of existence. In other words, the subject recovers the negative emotions experienced in the war through writing.

Through the above discussion, this paper can analyze the negative emotions surrounding the subject logically through ‘modal structure’ and can see the restorative writing which appear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modal structure’. This can provide new perspectives on the situation in which the subject is placed on the restorative writing about negative emotions in various contexts.

Keywords : *Ganyangnok*(看羊錄), negative emotion, modalisation, personal will(want), social duty(must), restorative writing, resilience

투고일 : 2018. 05. 21. / 심사일 : 2018. 06. 08. / 심사완료일 : 2018. 06. 13.

